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pISSN : 1229-6627
eISSN : 2672-1767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교육 양상 고찰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의 제재를 중심으로-

전한성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A study on the aspects of death education in current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Focusing on the genre materials of death motif narrative

Jeon, Hansung

Incheon University

jhs17@inu.ac.kr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aspects of death education of the genre materials of death motif narrative that appeared in high school literature textbooks based on the 2015 Korean language curriculum. Among the 10 literary textbooks, there are narrative, folk tale, classic novels, modern novels, essays, and movies. Among them, modern novels have the largest number of 21 works in 10 kinds of literature textbook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se works tend to be used as a means to reach the standard of achievement in literature education rather than to understand the unique features of Death Motif. It contained works dealing with various death motifs, but was steeped in teaching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In addition, a few specific works were being used as material to implement various learning objectiv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s of learning activities, most of these works consisted of educational content focused on promoting social and cultural understanding of death. As a process of life, there was a lack of awareness of death or activities to promote ethical understanding of death. In particular, it was difficult to find any activities to promote a philosophical and religious understanding of death.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t a clear purpose of death education in terms of literature curriculum and prepare standards and systematic contents for selecting materi---als.

Keywords: literature, literature education, a course of literature education, death, death education, human nature

OPEN ACCESS

KJRE. 2020 December, 64(1): 85-108

DOI: https://doi.org/10.12972/kjre.20200020

Received: November 22, 2020

Revised: December 22, 2020

Accepted: December 28, 2020

Copyright: © 2020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Ⅰ. 논의의 전제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 작품들의 제재 수록 양상과 학습활동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재 문학교육에서 나타나는 죽음교육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언어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국어교육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까닭은 국어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앎이 삶 또는 죽음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2020)은 삶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바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세계에 대한 지식, 즉 앎 또는 이해는 모두 삶의 기반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볼 때 앎과 삶의 친연성을 깨닫는 일은 곧 삶의 총체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삶에 대한 이해인데, 구체적으로 밝혀보자면 유한한 삶에 대한 앎의 문제이다. 이는 유한한 삶, 즉 죽음과 앎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이데거(2020:331)은 생명체로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음의 문제를 생물학적 맥락이 아닌 실존적 차원에서 삶의 의미 있는 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그는 죽음을 앎의 대상이 아닌 선택과 결단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사유를 보여준다. 죽음은 삶을 위협하는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유한한 삶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1] 역설적이게도 그의 이러한 사유는 앎과 삶의 괴리를 회복시켜주는 연결 지점에 죽음의 문제가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삶의 총체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삶, 그 자체인 죽음과 앎의 문제에 대한 자기 이해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바로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동윤·강선보(2016)은 죽음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들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죽음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죽음을 내세의 관문으로 보는 관점, 둘째, 죽음을 불가지(不可知)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 셋째, 죽음에 대한 자각이 삶의 동인(動因)이 된다고 보는 관점이 그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개인과 사회 차원에서 제시한다. 하나는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한 이해와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죽음교육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 아래 윤리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대 기술문명사회에서 개인의 자아 상실이 가져오는 인간소외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 문제를 고려해보면, 이러한 죽음교육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2]

현재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죽음교육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개 이상의 중·고등학교와 165개 이상의 대학에서 체계적인 죽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3]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까지 총 13년 동안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매주 2시간씩 종교교육을 실행하는데, 여기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다양한 죽음이라는 테마를 가르치고 있다.[4]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상실 체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아성찰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청소년 자살의 증가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삶의 중요성과 죽음의 불가피성, 종교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5] 이들이 죽음교육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주로 죽음의 개념과 역사, 죽음의 해석(특히 인간다운 죽음에 대한), 장례 의의, 자살,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슬픔, 상실감에 대한 문제 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특히 고등학교 문학교육의 하위 영역인 서사교육에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판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웰렉·워렌(1992:17)에 따르면, 문학연구는 자연과학과 다른 문화과학적 접근을 요구한다. 문화과학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데, 개별적인 것들은 어떤 가치 체계를 참조할 때 비로소 발견되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이 가치체계는 다름 아닌 문화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은 바로 인간의 시간, 언어, 정체성의 총화적 구현태인 문화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바로 문학의 하위

갈래 가운데 하나인 서사(narrative)이다. 서사는 사건에 참여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간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오래된 소통 양식 가운데 하나이다. 프랭스(1988:12)는 "서사물은 현실 또는 허구의 사건(events)과 상황들(situations)을 하나의 시간 연속(a time sequence)을 통해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사는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타자 등이 겪는 내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돕는 예술의 한 장르이기도 하다(누스바움, 1995:7-8). 또한 서사는 다양한 층위의 윤리를 함의하고 있다. 김근호(2013)에 따르면, 서사의 윤리적 층위는 서술의 윤리, 재현의 윤리, 해석학적 윤리로 이루어져 있다.[6] 이렇게 서사가 하나의 예술 장르이면서 다양한 윤리적 층위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인간이 서사적 존재임을 고려해 볼 때 학교 현장의 문학 수업에서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의 제재들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살펴보는 일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죽음은 개별적 존재자의 전체 삶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 아닌 직면해야 할 삶의 일부이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서사 갈래 가운데 죽음을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의 수록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활동 분석을 통해 현재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죽음교육의 현황을 고찰해 볼 것이다.[7] 여기서 고등학생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8]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변화와 상실, 분리 등으로 특정되는 과도기적 시기이기 때문이다(Papadatou, 1989). 이나영·유지영(2019:124)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죽음을 자신과 거리가 먼 추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거나, 낭만적인 것 혹은 어둠, 빛, 과도기적 상태, 무(無) 등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의 죽음을 아득한 미래 사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 불멸성(personal immortality)을 갖게 되는데, 그러한 만큼 자기 주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 큰 심적 충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청소년기엔 사색과 공상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자신의 죽음 인식은 약하지만 미래의 추상적 죽음이 언젠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이 극에 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행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죽음교육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교육적 매개 역할을 하는 교과서를 주목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국어과 교육과정(문학교육과정)에 죽음교육의 담론이 수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문학 교과서에서는 죽음 관련 서사 작품들이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본고에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 작품들의 제재 수록 양상과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어교육(문학교육)에서 죽음교육의 적용 및 실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9]

Ⅱ.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 작품의 제재 수록 양상

현행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문학 교과서는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미래엔,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창비,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해냄에듀로 총 10종이다.[10] 이 가운데 죽음모티프를 가진 서사 갈래에는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영화가 있다. 설화는 7개 종류의 문학 교과서에 총 8편이 수록되어 있고, 고전소설은 8개 종류에 총 5편, 현대소설은 10개 종류에 총 21편, 수필은 5개 종류에 총 6편, 영화는 2개 종류에 총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는 죽음모티프와 관련하여 현대소설 작품이 제일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서사 갈래의 작품들이 각종 문학 교과서의 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설화 작품의 제재 수록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설화 갈래의 죽음모티프 서사 제재 수록 양상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나무꾼과 선녀	금기를 어기고 지상에 남겨진 나무꾼의 고독한 죽음	Ⅰ.문학과 삶 1.문학의 힘	천재 교과서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주인공의 영웅서사와 지하국 도적의 죽음	Ⅳ.한국 문학의 위상 2.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몽골 부랴트족의 설화	주인공의 영웅서사와 도적의 죽음	Ⅳ.한국 문학의 위상 2.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	
조신설화 (조신의 꿈)	꿈속에서 겪는 가난하고 비참한 현실과 큰아들의 죽음	3.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천재 교육
		Ⅳ.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서사 갈래의 흐름	좋은책 신사고
		2.문학 활동, 어떻게 하는가 (1)꼼꼼히 읽어보기	금성 출판사
용소와 며느리 바위	금기를 어겨 화석이 되어 버린 며느리	4.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천재 교육
김현감호(호원)	김현을 위한 호랑이 처녀의 희생	4.한국 문학의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지학사
백이와 숙제	지조를 지키다 죽은 백이와 숙제	4.한국 문학의 역사 (2)조선 시대의 문학	비상
접동새 배경설화	접동새에 얽힌 소녀의 죽음 이야기	4.한국 문학의 역사 (2)조선 시대의 문학 Ⅲ.한국 문학, 어떻게 이해할까 1.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비상 해냄 에듀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갈래의 주요 작품들은 「나무꾼과 선녀」,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몽골 부랴트족의 설화」, 「조신설화」, 「용소와 며느리바위」, 「김현감호」, 「백이와 숙제」, 「접동새 배경설화」이다. 이들 설화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주로 자아와 세계의 대결 구도에서 발생하는 긍정 또는 부정적 죽음의 인식 양상을 보여준다. 세계와 대립 관계에 놓인 자아는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경우에는 희생적인 죽음 또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신념 없이 세계의 질서를 따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작품들은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체로 '한국 문학의 전통과 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재로 수록되고 있다. 2015 문학교육과정 내용체계는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문학에 대한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죽음모티프를 가진 설화 제재는 이 가운데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파악하는 교육 내용의 이해에만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1] 설화(說話)는 자연적·집단적 발생을 특징으로 하며, 한 민족의 생활관습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설화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풍부한 경험과 상상력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서사성(敍事性)을 드러낸다. 이러한 까닭에 설화는 다양한 층위의 원형적 의미를 함축할 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에 대한 인식의 총화로서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신동흔, 2007: 417) 설화의 모티프는 이야기를 통한 세계인식의 출발이자 통로이기 때문에, 주요 모티프들에 담긴 세계 인식의 양태를 읽어내는 것은 인간의 삶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죽음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동일한 주제의 설화일지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코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교육 내용체계 내의 다른 영역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에 대한 태도'영역에서 죽음모티프를 가진 설화를 수용하는 학습자들이 서사에 대한 응답하기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해당 서사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를 고민해보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제재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고전소설 작품의 제재 수록 양상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고전소설 갈래의 죽음모티프 서사 제재 수록 양상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이생규장전	죽음을 초월한 '최 씨'와 '이생'의 사랑	Ⅲ.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2.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창비
		4.한국 문학의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지학사
		4.한국 문학의 역사 (2)조선 시대의 문학	비상
		5.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 (2)서사 문학의 흐름과 특질	금성 출판사
		2.문학의 수용과 생산 (1)문학 감상의 맥락	미래엔
		Ⅲ.한국 문학의 이해 2.조선 시대의 문학	동아 출판
임경업전	모함을 받은 임경업의 죽음과 그의 충절	4.한국 문학의 역사 (2)조선 시대의 문학	비상
운영전	김생과 운영의 사랑과 비극적인 결말	Ⅳ.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2.서사 갈래의 흐름	해냄 에듀
		2.문학 활동, 어떻게 하는가 (3)거리를 조절하며 읽고 소통하기	금성 출판사
장끼전	고집을 부려 죽은 장끼와 비통해 하는 까투리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1.문학 작품의 맥락과 수용	좋은책 신사고
조웅전	권선징악과 죽음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2.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동아 출판

위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소설 갈래의 주요 작품들은 「이생규장전」, 「임경업전」, 「운영전」, 「장끼전」, 「조웅전」이다. 이들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주로 삶과 죽음의 문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권선징악과 죽음', '사랑과 비극적 죽음'에 관해 다룬 작품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생규장전」이다. 이 소설은 김시습의 한문소설집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실려 있는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은 크게 두 개의 이야기 축으로 구성된다. 전반부에서는 주인공 이생(李生)이 문벌의 차이라는 장벽 속에서도 힘겨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후반부에서는 현실세계의 질곡으로 인해 간절했던 사랑이 결국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소설은 젊은 남녀의 욕망을 유교적 이념 속에 가두려는 현실의 부조리한 도덕규범을 비판한 것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안창수, 2016:440).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소설은 무려 6개의 출판사(창비, 지학사, 비상, 금성출판, 미래엔, 동아출판)에서 나온 문학 교과서에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이 수록된 단원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체로 한국 문학의 서사적 특징을 파악하거나, 인물들의 죽음을 넘어서는 열정적 사랑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작품에 나타난 삶과 죽음, 사랑의 의미를 헤아려보거나, 창작 의도 및 원리를 파악하는 등 다양한 제재 활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죽음 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죽음모티프를 기반으로 하는 고전소설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무엇을 인식하고 고민해야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방향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문학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내용성취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 작품들이 대거 수록되는 현상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현대소설 작품의 제재 수록 양상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 현대소설이 죽음모티프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현대소설 갈래의 죽음모티프 서사 제재 수록 양상 (to be continued)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뿌리 이야기	돌아가신 위안부 고모할머니의 기억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2.문학의 맥락과 인접분야	천재 교과서
은강 노동가족의 생계비	산업화 사회의 현실과 난쟁이 아버지의 죽음	Ⅲ.한국 문학의 흐름 4.광복 이후의 문학	
고향	일제강점기의 현실과 '그'의 부모의 죽음	Ⅰ.문학의 본질 1.문학의 기능	창비
빼떼기	닭 '빼떼기'와의 추억과 죽음	Ⅰ.문학의 본질 2.문학은 나의 힘	
엄마의 말뚝	6.25전쟁의 아픔과 '오빠'의 죽음	Ⅲ.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2.한국 문학의 갈래별 전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산업화 사회의 현실과 장애인 아버지의 죽음	Ⅲ.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3.한국 문학의 변화와 발전	
		4.한국 문학의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지학사
		2.문학의 수용과 생산 (2)문학 작품의 수용과 소통	비상
		Ⅳ.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서사 갈래의 흐름	좋은책 신사고
		2.문학 활동, 어떻게 하는가 (2)맥락에 비추어 읽기	금성 출판사
		Ⅲ.한국 문학의 이해 4.1960년대 이후의 문학	동아출판
입동	아들 '영우'의 죽음과 남겨진 가족의 슬픔	Ⅳ.문학과 삶 문학의 가치	창비
유자소전	작중에서 드러나는 장례식장의 문화	2.문학의 수용과 생산 (1)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천재 교육
겨울 나들이	6.25 전쟁 중 살해 된 '아주머니'의 남편	3.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황진이	황진이를 짝사랑하다 상사병에 걸려 죽어버린총각	4.한국 문학의 과거, 현재, 미래 (3)한국 문학의 확장과 발전	
		3.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1)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미래앤
두근두근 내 인생	조로병에 걸린 소년의 삶과 죽음의 순간	1.문학의 본질과 가치 [1]문학의 본질	지학사
태평천하	화적에게 살해당한 윤용규와 윤직원의 태도	3.한국 문학의 성격 [2]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	
		4.한국 문학의 역사 (3)개화기~일제 강점기의 문학	비상
너와 나만의 시간	전쟁 속 극한상황에서 다가오는 죽음의 압박과 삶의 의지	4.한국 문학의 흐름 [2]서사갈래의 흐름	지학사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황만근의 죽음으로 깨닫게 되는 그의 존재	2.문학의 수용과 생산 (1)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	비상
		6.문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2)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향하여	금성 출판사

<표 3> 현대소설 갈래의 죽음모티프 서사 제재 수록 양상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광장	남한과 북한의 갈등 속에서 중립국을 찾아 자살한 명준	4.한국 문학의 역사 (4)광복 이후의 문학	비상
		5.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 (2)서사 문학의 흐름과 특질	금성 출판사
		4.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4)근현대 문학	미래앤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현아'의 남편이 유품으로 남긴 시집과 첫사랑의 기억	Ⅱ.문학 활동의 즐거움 속으로 2.문학 작품의 창작	해냄 에듀
서울 1964년 겨울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된 한 인간의 죽음	Ⅳ.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2.서사갈래의 흐름	
		1.문학의 기능과 원리 대단원 마무리	미래엔
태백산맥	이데올로기 갈등에 의한 분노와 죽음	Ⅴ.삶과 함께하는 문학 2.문학과 공동체 문학	해냄 에듀
나상	전쟁 포로로 잡힌 형의 비극적 죽음	Ⅰ.문학의 본질과 구조 2.문학의 유기적 구조	좋은책 신사고
우리에겐 일년 누군가에겐 칠 년	'봉순이'의 죽음과어머니의 태도	2.문학 활동, 어떻게 하는가 (4)작가 되어 보기	금성 출판사
그 여자네 집	일제 강점기와 분단 속이루지 못한 청춘 남녀의 첫사랑과 처의죽음	4.한국 문학의 내포와 외연 (2)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망자	젊은 날 첫사랑의 죽음과아픔의 기억	4.한국 문학의 내포와 외연 (2)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신짜오, 신짜오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죽음과 상실	6.문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1)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를 향하여	
스노우 맨	경쟁사회 속 한 개인의죽음	2.문학의 수용과 생산 (2)문학 활동의 이해	미래앤
변신	사회로부터 소외된 한 인간의 쓸쓸한 죽음	3.한국 문학의 개념과 성격 (2)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내 여자의 열매	현대 사회의 폭력성에 적응하지 못한 한 여인의 죽음	4.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4)근현대 문학	
그해 겨울은따뜻했네	전쟁에서 비롯된 한 가족의 비극과 동생의 죽음	5.문학의 가치 (2)문학과 공동체	
병신과 머저리	6.25 전쟁의 아픔과 가상인물의 죽음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1.문학의 내용과 형식	동아출판
처삼촌 묘벌초하기	처가의 산소 벌초와 허무한 결말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2.문학 작품의 수용과 생산	
완장	권력의 희생양이 되었던 '종술'의 아버지	Ⅱ.문학의 수용과 생산 3.문학 지평의 확대	
해산 바가지	시어머니의 임종과진정한 삶의 가치	Ⅳ.문학의 생활화 성찰과 소통으로서의 문학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갈래의 주요 작품들은 「뿌리 이야기」,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고향」, 「빼떼기」, 「엄마의 말뚝」,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입동」, 「유자소전」, 「겨울 나들이」, 「황진이」, 「두근두근 내 인생」, 「태평천하」, 「너와 나만의 시간」,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광장」,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서울 1964년 겨울」, 「태백산맥」, 「나상」, 「우리에겐 일 년 누군가에겐 칠 년」, 「그 여자네 집」, 「망자」, 「신짜오, 신짜오」, 「스노우 맨」, 「변신」, 「내 여자의

열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병신과 머저리」, 「처삼촌 묘 벌초하기」, 「완장」, 「해산 바가지」이다. 이들 현대소설의 죽음모티프는 서사 갈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쟁과 죽음', '가족의 죽음', '장례 및 유언', '유물과 관련된 죽음', '권력과 죽음', '사랑과 죽음', '산업화와 죽음', '타인의 임종'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산업화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과 아버지의 죽음을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총 5개의 문학 교과서(지학사, 비상, 좋은책신사고, 금성출판사, 동아출판)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전쟁과 비극적 죽음을 모티프로 다루고 있는 「광장」이 총 3개의 문학 교과서(비상, 금성출판사, 미래엔)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소설 갈래에서 죽음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서사들은 주로 거시적 차원에서 전쟁이나 산업사회의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 희생되는 가족의 비극적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거시적 안목에서의 죽음 담론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차원에서 개인의 죽음이나 죽음에 직면한 삶, 자살 문제 등을 다룬 현대소설들이 제재로 적극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 한편, 이렇게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진 현대소설은 대체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선택 '문학'과목의 교육내용체계 가운데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는 단원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문학에 대한 태도'영역을 가르치기 위한 제재로서의 현대소설과 해당 단원은 보이지 않는다. '문학에 대한 태도'영역에서는 '자아 성찰', '타자의 이해와 소통', '문학의 생활화'와 같은 내용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12] 이와 관련된 내용성취기준은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와 '문학 활동을 생활화하여 인간다운 삶을 가꾸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이다.[13] 이는 문학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문학 향유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학에 대한 태도'영역의 교육내용은 앞서 개인과 사회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학에 대한 태도'영역의 교육내용을 반영한 단원들이 문학 교과서에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거시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간에, 청소년들이 죽음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인식에서 벗어나 자기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의 태도를 함양해주기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죽음 형상화가 잘 이루어진 청소년 주인공의 소설 작품들이 문학 교과서의 제재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필 갈래의 제재 수록 양상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수필 갈래의 죽음모티프 서사 제재 수록 양상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풀 비린내에대하여	차체에 부딪혀 죽은 수많은 풀벌레의 시체와 죄책감	1.문학과 삶 (1)문학의 기능과 가치	천재교육
총, 꽃, 시	죽음과 폭력 앞에 당당한꽃과 시	2.문학의 소통 [3]문학의 확장	지학사
젊은 아버지의추억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추억	4.한국 문학의 흐름[4]교술 갈래의 흐름	지학사
설해목	지금은 세상을 떠난 한 '노사(老師)'에 관한 기억	Ⅳ.한국 문학이 걸어온 길을 따라서 4.교술갈래의 흐름	해냄 에듀
한중록	사도세자의 죽음과 남겨진 경궁 홍씨의 심경	Ⅳ.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4.교술 갈래의 흐름	좋은책 신사고
나는 말랄라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에 의한 무고한 죽음	6.문학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 (2)인간다움과 공동체의 문화 발전을 향하여	금성 출판사

위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갈래의 주요작품들은 「풀 비린내에 대하여」, 「총, 꽃, 시」, 「젊은 아버지의 추억」, 「설해목」, 「한중록」, 「나는 말랄라」이다. 이들 수필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죽음의 여러 가지 양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죽음에 직면한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부조리함에 맞선 당당한 죽음', '상실 체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 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들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수필 서사는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로 교술 갈래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수필의 기능 및 가치를 이해하는 단원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수필은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거시적 차원에서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다. 허상문(2015:38)은 수필이 대중에게 지혜와 이성, 도덕성과 실천력을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인문학의 하나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필이 개인의 경험을 개성 있는 문체로 드러낸 서사 장르임을 생각해보면, 청소년의 실제적 삶 속에서 죽음을 돌아보게 하는 성찰로서의 죽음교육이 가능한 작품들이 제재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 학습자들이 '서사에 등장하는 죽음에 직면한 인물에 자신을 투영하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의 경험'과 '서사적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윤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당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청소년 작가의 작품들을 제재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은 영화(극) 갈래의 제재 수록 양상이다.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영화 갈래의 죽음모티프 제재 수록 양상

작품	모티프	단원	출판사
8월의 크리스마스	사진사 정원의 사랑과 죽음	4.한국 문학의 흐름 [3]극 갈래의 흐름	지학사
노트북	노아와 앨리의 사랑과 죽음	2.문학 활동, 어떻게 하는가 (3)거리를 조절하며 읽고 소통하기	금성출판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노부부의 사랑과 죽음	3.문학의 동반자들 (1)문학, 그 인접 분야를 만나다.	

위의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영화(극) 갈래의 주요 작품들은 「8월의 크리스마스」, 「노트북」,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이다. 이들 영화 서사는 모두 '사랑과 죽음'에 관해 다루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상실의 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불투명한 죽음인식을 보이는 고등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교육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라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제고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의 세 작품들은 대체로 영화 서사의 갈래적 특징을 파악하고, 의사소통 관점에서 문학과 삶을 조명하며, 문학성을 지닌 인접 장르와의 비교활동 속에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극 갈래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서사 속에 나타나는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인격(작가, 화자, 인물)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대화적 관계의 책임 윤리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영상매체로서의 영화 서사가 지학사와 금성출판사, 두 문학 교과서에만 수록되어 있고, 그 주제가 '사랑과 죽음'이라는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영화 서사 외에 다매체 서사 양식들이 죽음교육의 제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웹툰 <신과 함께>에 나타난 죽음의 세계에 대한 저승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전통관을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14]

지금까지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를 가진 다양한 서사 갈래 작품들의 제재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2015 교육과정 일반선택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죽음모티프의 서사 갈래는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영화이다. 설화는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진 작품들이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는 단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설화를 통한 우리 선조들의 죽음 인식과 대응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음

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은 문학교육 내용체계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한 단원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 고전소설 대부분은 '권선징악과 죽음', '사랑과 비극적 죽음'이라는 이야기에 함몰되어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이생규장전」과 같은 특정한 작품이 여러 교과서에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는 제재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현대소설은 여러 서사 갈래 가운데 죽음모티프를 가진 작품이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장르이다. 죽음모티프 또한 테마별로 다양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전쟁과 죽음', '가족의 죽음', '장례 및 유언', '유물과 관련된 죽음', '권력과 죽음', '사랑과 죽음', '산업화와 죽음', '타인의 임종'등 죽음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이 제재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광장」이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처럼 전쟁이나 사회의 부조리와 연결된 비극적 죽음과 같은 거대담론을 다룬 작품들이 여러 교과서에 중복으로 수록되는 경향이 있다. 자살의 문제와 같이 죽음 앞에 직면한 자의 내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미시적 차원의 작품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정체성 혼란의 시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발달을 고려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세대들이 공감할 만한 죽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서사 작품들이 적극 수용될 필요가 있다. 김지혜(2015:2-3)는 성장 과정에서 기성세대와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삶과 고민이 반영된 작품들을 통해 정서적 위안과 즐거움을 얻고 자아와 세계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 갈 수 있다"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열린 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가족 내 불화, 성적, 왕따, 원조교제, 성폭력, 미혼모, 동성애, 자살 문제 등 다양한 파국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을 문학 교과서 제재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수필은 서사 갈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진 작품들이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생명의 소중함'과 '상실 체험' 등은 개인의 경험을 개성 있게 표현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죽음을 통해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만하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해당 단원을 살펴보면 교술 갈래의 특징을 파악하는 기능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극)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활용된 경우가 적다. 또한 수록된 세 편의 작품들은 모두 '사랑과 죽음'이라는 단일한 주제만을 다루고 있다. 다매체시대를 고려해보면, 향후 영화 외에 웹툰이나 블로그, 유튜브,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매체서사가 제재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15] 다매체 환경속의 서사 텍스트는 온라인 플랫폼 등을 바탕으로 공감과 소통, 배려와 협력 등을 통해 자기 해체와 재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인식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남궁정, 2019:297). 따라서 문화기호학을 기반으로 다매체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들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매체서사 텍스트에 대한 서사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미래사회의 삶에 대한 예비적 성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II.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 내용 분석

칼 베커(2004:25-36)은 죽음교육을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초등학교의 죽음교육', '중·고등학교의 죽음교육', '대학의 죽음교육', '성인의 죽음교육', '전문 죽음교육'이 그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의 죽음교육'은 지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이 시기 죽음교육의 내용으로 죽음과 책임의 문제를 관련지어 교육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은 스스로 무엇이든 결정할 나이라고 전제하고 죽음과 죽어감의 관계를 포함하여 운전교육, 건강교육, 성교육 등을 배운다. 예를 들면, 그들은 태어날 아이가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고,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하였는지 아닌지에 따라 낙태를 결정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때 그들에게 죽음과 책임의 문제는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고등학교는 하나의 단일한 과로서 죽음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 역사, 사회, 생명과학, 보건, 체육, 종교처럼 죽음과 관련된 과목 내에서 소단위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문학은 학생들이 독서체험을 통해 타인의 경험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험을 기록이나 편지, 에세이로 쓰기 때문에 하나의 바람직한 죽음교육 모델이 되고 있다.[16]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서는 죽음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학습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교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죽음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범주는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죽음교육의 내용에 대한 범주 문제는 알폰스 디켄(2008:98-125)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죽음교육에 도달하기 위해 나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죽음을 가르쳐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죽음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해, (2)인간답게 죽는 방법의 생각, (3)죽음의 터부(taboo) 없애기, (4)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대한 대응, (5)생명의 위협: 자살방지, (6)병명 통지와 영적 간호(spiritual care), (7)호스피스 운동, (8)안락사, (9)장기이식에 관한 생각, (10)장례식: 어린이를 참석시키는 것의 의미, (11)유머교육의 권장, (12)사후에 대한 고찰: 철학적·종교적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죽음교육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 인식, 둘째, 죽음에 대한 대응, 셋째,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넷째, 죽음에 대한 의학적·윤리적인 이해, 다섯째,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여섯째,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인 이해이다. 이 장에서는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죽음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여섯 가지 죽음교육의 내용 범주를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서사 갈래에 나타난 죽음 관련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설화 갈래이다. 앞서 밝혔듯이,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갈래의 죽음모티프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 구도에서 발생하는 긍정 또는 부정의 죽음 인식 양상이다. 세계와 대립 관계에 놓인 자아는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경우, 희생적인 죽음 또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반면에, 신념 없이 세계의 질서를 따르지 못한 경우, 자아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 제재의 이러한 죽음 양상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품들은 대부분 문학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성취기준 달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김근호(2013:41-81)은 문학 작품이 문학교육의 장(場)에서 제재화될 경우, 문학적 형상성과 문학교육의 이념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점을 찾아 올바른 교육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지적처럼, 실제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설화 제재인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몽골 부랴트족의 설화」 등의 학습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단원 학습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어 있다. 해당 설화들이 갖고 있는 죽음모티프보다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 구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무꾼과 선녀」, 「백이와 숙제」, 「접동새 배경설화」, 「용소와 며느리바위」 등의 학습활동은 대체로 한국문학의 개념을 파악하고, 설화의 전체적인 줄거리와 장르적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 작품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신설화」(천재교육)와 「김현감호」(지학사)이다. 「조신설화」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단원 학습 목표인 서사 갈래의 특징(구비전승문학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몇몇 교과서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좋은책신사고', '금성출판사', '천재교육' 교과서가 '꿈'을 중심으로 「구운몽」의 이야기 서사 구조와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천재교육'의 교과서 해당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천재교육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조신설화」 학습활동 예시(174쪽)

다음은 《삼국유사》에 실린 조신설화를 요약한 것이다. 꿈의 기능에 주목하여 구운몽과 비교해보자.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김흔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 조신은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다가오더니, 일찍부터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다는 고백을 하였다. 이에 조신은 기뻐하며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점점 가난해져 식구들을 이끌고 구걸하러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그러던 중 열다섯 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 길가에 묻게 되었다. 또 열 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을 다니다가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하였다. 홀연히 꿈을 깨니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세어 있었다. 이에 마치 백 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녹듯 사라졌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참회하고, 꿈속에서 큰 아들을 묻었던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있었다. 조신은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일연, 《삼국유사》에서
(1) 꿈꾸기 전에 성진이 바라던 것과 조신이 바라던 것, 꿈 속 -양소유가 겪은 것과 조신이 겪은 것, 꿈 깬 후에 성진이 깨달은 것과 조신이 깨달은 것. (2) 두 작품에서 '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위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조신설화」와 「구운몽」의 서사는 환몽구조이다. 환몽구조는 현실-꿈-현실의 액자식 구성으로 이루어지는데,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나듦을 통해 현실의 일상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해준다.[17] 두 작품의 주인공 조신과 양소유는 하룻밤의 '꿈'을 통해 자신의 일생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깨달음을 얻게 된다. 위의 활동은 '꿈'을 통해 주인공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품 속에서 '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토의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간접 체험이긴 하지만, '꿈'이라는 서사장치를 통해 학습자들이 죽음 앞으로 달려가 봄으로써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학을 통한 죽음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일상적 가능성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래적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을 '미리 달려가 봄'이라고 설명한다(하이데거, 이수정 옮김, 2020). 신교남·이병승(2013:228)은 삶 속에서 죽음을 직면하는 일은 현존재의 본래성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의 '양심(良心, Gewissen)'을 직시하는 것으로, 현존재가 세인의 목소리에 대한 귀 기울임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조신설화」와 「구운몽」에 나타난 '꿈'의 서사적 장치를 파악하는 활동은 문학적 형상화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삶 속에서 죽음의 문제를 '미리 달려 가 봄'으로써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 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 두 작품은 모두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불교적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이는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구성하는 데도 유용하다. 따라서 향후 이들 설화 작품을 통해 종교적 관점에서도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학습활동 내용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고전소설 갈래이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죽음모티프를 가진 고전소설 작품들은 「이생규장전」, 「임경업전」, 「운영전」, 「장끼전」, 「조웅전」이다. 이들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주로 '권선징악과 죽음', '사랑과 비극적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이해'의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들 작품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는 전체 서사에서 지배적인 화소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죽음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체로 이들 제재의 학습활동은 한 개인이 고난과 극복을 반복하는 영웅 서사의 이야기 파악에 초

점을 두고 있다. 이들 작품은 서사 갈래의 전개(고전소설의 장르적 전개 양상)와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황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 및 감상하는 활동이 대부분이다.[18]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이생규장전」 역시 주요 사건의 정리,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역사적 배경과 관련된 상황, 남녀 간의 애정과 관련된 인식, 당시 여성상과 관련된 가치관 등)에서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활동이 대부분이다. 물론, 동아출판 문학 교과서에서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비교하는 활동이 있다.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비교 및 설명해 보는 활동, 행복한 결말이었다면 주제에 대한 독자의 감동이 어떻게 달라지겠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활동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동들은 당대의 죽음관을 이해함으로써 현재 우리네 삶의 문제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 볼 것은 금성출판사의 문학 교과서가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이다. 일부 활동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장전」 학습활동 예시

<초점 활동>, 235쪽. 2. 한국 문학의 특질 중에는 '한(恨)'이 언급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는 '한'의 생성과 해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추론해 보자.	
'한'의 생성 원인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죽음과 이별
'한'의 해소 방법	

위의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장전」 제재의 학습활동 가운데는 '한'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있다. 금성출판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한 눈에 보기>, <초점 활동>, <확장활동>으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활동은 <초점 활동> 가운데 일부이다. 한국 문학의 특질 가운데 하나인 '한(恨)'의 정서가 「이생규장전」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해소되는지를 통해 우리 민족의 정서를 이해하는 활동이다. '삶의 현실에서 만나는 예기치 않은 죽음과 이별'이라는 '한'의 생성 원인이 어떤 방식으로 해소되는지 파악하는 활동은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형상화를 이해함과 동시에 상실 체험을 통해 타자 죽음 및 타자의 죽음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다. 이승현(2018:11)은 '한'을 이야기하는 한국 문학들은 눈물의 미학을 넘어 슬픔의 현실에서 애한이나 정한 또는 원한을 자기 내면으로 승화하는 과정을 잘 그려낸다고 말한다. 학습자들은 죽음과 상실 그리고 극복의 과정이라는 간접 체험을 통해 '한'의 정서를 공감하게 되고, 타자의 죽음에 대해 애도할 수 있게 된다. 윌리엄스 워던(2008)에 따르면, '애도'는 죽음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여 슬픔의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 상태에 이르기까지 상실에 대한 일련의 적응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자의 죽음 특히 가족과 같은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다룬 작품은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죽음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현대소설 갈래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 갈래의 죽음모티프는 앞서 밝혔듯이, '전쟁과 죽음', '가족의 죽음', '장례 및 유언', '유물과 관련된 죽음', '권력과 죽음', '사랑과 죽음', '산업화와 죽음', '타인의 임종' 등으로 서사 갈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현대소설 갈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죽음모티프는 거시적 관점에서 전쟁과 관련된 인간의 비극적 죽음이나 산업사회와 관련된 소외로서의 죽음이 대부분이다. 전쟁과 관련된 죽음을 다루고 있는 주요 작품들은 「광장」, 「태백산맥」, 「나상」, 「완장」, 「너와 나만의 시간」, 「엄마의 말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겨울 나들이」, 「병신과 머저리」, 「신짜오, 신짜오」 등이 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학습활동 제재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은 「광장」이다. 이 작품은 비상, 금성출판사, 미래엔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로 한국문학의 갈래와 특성을 파악하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주인공 '이명준'이라

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남과 북의 시대상황(전쟁의 극한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중립국을 선택하는 명준의 결심에 주목하는 서사 구성을 파악하는 활동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광장」 역시 단원 학습목표의 달성을 초점에 두고 있는 학습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금성출판사에서 이명준의 투신을 죽음이 아니라, '재생'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를 찾아 이유를 추측해보자는 활동이 눈에 띈다. 현재 남북한 분단의 현실을 고려해본다면, 학습자들이 '전쟁과 죽음의 문제'를 현재 자신의 삶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면에서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2019, 303-304)의 다음 학습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표 8>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신짜오, 신짜오」 학습활동 예시

<한눈에 보기> ◦ 작품 속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다음 표를 통해 정리해 보자.	
사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이 응웬 아줌마네 가족을 죽였다는 것이 대화 중에 밝혀짐
엄마	몰랐던 사실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응웬 아줌마의 슬픔에 공감한다.
아빠	
응웬 아줌마	
<초점활동> 1. <신짜오, 신짜오>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독일 학교의 '선생님'과 반장 '잉가'가 베트남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평가해 보자.	
	베트남전쟁에 대한 생각
선생님	
잉가	
2) 타인을 배려하는 자세를 생각하며, 자신이 같은 반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투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자. 2. '응웬 아줌마'네 가족들의 참상을 대하는 엄마와 아빠의 태도 중 자신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밝혀보자.	
나는 (엄마/아빠)의 태도를 지지한다. 그 이유는_____.	

위의 <표 8>은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신짜오, 신짜오」라는 작품의 학습활동이다.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으로 상처 입은 두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위의 학습활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문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베트남전쟁으로 상처 입은 두 가족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타자를 이해하고 상호소통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쟁의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소중한 가족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죽음을 통해 개인적 차원, 나아가 사회적 차원, 더 나아가 인류 차원에서 인간의 존엄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죽음교육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문학교육의 관점에서도 죽음의 참상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의 형상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사문학의 갈래와 특성 또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산업사회와 죽음의 문제를 다룬 주요 작품으로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은강 노동 가족의 생계비」, 「서울 1964년 겨울」이 있다. 산업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인간소외와 죽음의 문제를 모티프로 하고 있는 이 작품들 역시 작품 고유의 형상성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 문학교육의 이념에 따라 단원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방향

으로 학습활동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 작품 가운데 학습활동 제재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작품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도시 재개발로 인해 자신의 주거를 박탈당하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창비, 지학사, 비상, 좋은책신사고,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데, 주로 작품 속에 나타난 사회현실의 시대상을 파악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문학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난쟁이로 표상되는 소외계층의 삶이 어떤 것인지 주목하는 활동이나,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을 바탕으로 갈등의 양상을 파악해보고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보는 활동, 소설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과 당시 삶의 모습을 오늘날과 비교해보는 활동 등은 죽음교육의 내용 범주 가운데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에 해당한다. 대체로 현대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죽음교육의 내용은 작품에 나타난 가족이나 개인의 죽음 양상 및 인식에 초점을 두기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로 다루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특징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반영론 또는 리얼리즘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다음은 금성출판사의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학습활동의 한 예이다.

<표 9>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그 여자네 집」 학습활동 예시

<초점활동>, 190쪽.
1. (가)<그 여자네 집>과 (나)<망자>를 비교해보고,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 알아보자.
(1) 사건 전개 또는 주제의 측면에서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자.

	(가) <그 여자네 집>	(나) <망자>
공통점	-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 -	
차이점	- -	- -

위의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성출판사의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그 여자네 집」은 「망자」와의 사건 전개 또는 주체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적 비극 속에서 곱단이와 만득이의 비극적 사랑은 민초들의 지난한 삶을 대표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의 비극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이야기 전개와 주제를 통해 한국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게 하는 활동인 것이다. 현대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십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제시한 작품들을 통해 삶의 과정으로서의 죽음인식이나 죽음에 대한 대응, 생명존중의식 함양, 죽음에 대한 윤리적 이해 등과 같은 관점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이를 통해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유도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교육 내용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미래엔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스노우 맨」(2019:84)이나 벌레로 변해 죽어가는 회사원의 일상을 다룬 「변신」(2019:148), 폭력적인 현대사회 속에서 나무로 변해버린 한 여자의 삶을 그린 「내 여자의 열매」(2019:276)와 같은 작품들 역시 모두 현대사회로부터 소외된 죽음을 이해하는 활동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물론, 모든 교과서들이 죽음의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의 문제를 거시적 담론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을 바탕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죽음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하는 학습활동들도 있다. 천재교과서(김동환 외, 2019:95)에 수록된 「뿌리 이야기」는 위안부 사실을 숨기고 살던 고모할머니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위안부 등록을 하지 않았던 고모할머니의 행동과 죽음의 순간에 주인공 '나'의 손을 꽉 그러잡은 것에 대한 고모할머니의 생각을 파악하게 하는 활동은 거시적 담론을 개인차원에서 실감 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죽음의 문제와 책임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동아출판의 문학 교과서(김창원 외, 2019:288)에 수록된 「해산 바가지」 역시 마찬가지

이다. 이 작품은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경건하게 손주의 탄생을 맞이한 시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통해 생명 존중 사상을 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인 '나'가 타자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통해 깨닫게 된 삶의 소중한 가치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고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생명의 소중함과 타자의 이해 및 상호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나 현대소설 갈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는 지나치게 사회·문화적인 이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죽음에 대한 윤리적 이해 및 나아가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활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수필 갈래이다. 앞서 밝혔듯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수필 작품들에 나타난 죽음모티프의 양상은 다양하다. 이들 작품들은 대체로 죽음에 직면한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부조리함에 맞선 의로운 죽음, 상실 체험, 억울하고 비극적인 죽음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주요 작품들은 「풀 비린내에 대하여」, 「총, 꽃, 시」, 「젊은 아버지의 추억」, 「설해목」, 「한중록」, 「나는 말랄라」이다. 이들 수필 제재는 죽음의 여러 가지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타 갈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작품 고유의 형상성을 파악하기보다는 문학교육의 이념에 따라 단원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화되어 있다. 「한중록」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한 국가의 역사와 가족사가 병첩된 탁월한 심리기록물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습활동은 작품의 주요사건을 정리하고 문학과 역사의 차이점을 파악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죽음교육과 관련하여 찾아볼 수 있는 활동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었던 작가 혜경궁 홍씨의 심경이 어떠했을지 이야기해 보는 활동이 전부이다. 「나는 말랄라」의 경우도 주인공 소녀 말랄라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여성 인권과 교육 받을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용기와 신념에 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공동체 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말랄라의 행위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사정 속에서도 주목할 것은 천재교육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풀 비린내에 대하여」의 학습활동이다. 「풀 비린내에 대하여」는 죽음교육의 내용 가운데 '생명 존중의 인식 함양'과 '죽음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유용한 학습활동 제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천재교육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풀 비린내에 대하여」 학습활동 예시

<학습활동> 36-37쪽. 1. '풀 비린내' 사건을 전후하여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행동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해 보자. 2. 이글에 담긴 윤리적 성찰과 관련하여 아래 활동을 해보자. (1) 이 글의 글쓴이가 '자동차'에 대해 갖게 된 생각을 다음과 관련지어 이해해보자.
생태 중심주의 윤리에서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며, 자연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2) (1)에서 파악한 글쓴이의 생각에 대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둠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자. (3) 우리 주변에서 이 글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대상을 찾고, 그것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 모둠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3. 다음은 '이(蝨)'와 '개(犬)'의 죽음을 소재로 한 고려시대 글이다. <풀 비린내에 대하여>와 비교하며 읽어보자. (1)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이 글의 글쓴이와 <풀 비린내에 대하여>의 글쓴이가 생명을 바라보는 공통적인 관점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위의 <표 10>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풀 비린내에 대하여」는 주인공이 자동차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삶과 생태 문제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고 있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고속도로 야간 운전을 한 다음 날 자동차의 유리창과 앞 범퍼에 풀벌레들이 무수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아 자신의 생활방식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활동은 글쓴이의 사고 및 생활방식이 풀 비린내 사건을 전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체를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등에 대한 생태적 사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생명 존중 인식의 함양은 활동3의 「슬견설」과 비교하여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립하는 데서 잘 확인할 수 있다. 풀벌레나 이와 같은 보잘 것 없다고 생각되는 미물에 대한 일반적인 통념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동등하다는 생태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전환해줌으로써 죽음에 대한 윤리적 성찰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편, 수필 갈래의 대부분 학습활동이 위의 예시처럼, 읽기 또는 말하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죽음교육과 관련하여 쓰기(창작)영역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최인자(2001)는 정체성 구성 활동으로써 자전적 서사 쓰기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경험을 사실적 차원에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와 사회·문화적 문맥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운데 화행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형성하는 수행적 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즉, 글쓰기 자아는 자전적 탐색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자아의 생성을 확인하며 성장한다는 것이다. 수필 서사는 개인의 경험을 솔직하고 개성 있는 문체로 표현하는 장르이다. 따라서 한 개인의 경험에 대한 텍스트의 의미화는 곧 경험의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행위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전한성, 2013:259). 이렇게 볼 때 생명 존중 인식을 함양하고 윤리적 차원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는 자기 경험의 서사 창작 활동은 죽음교육의 효과적인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Z세대 보고서>에서 밝힌 대한민국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않은 순서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살률이 최상위권에 해당한다.[19] 청소년의 자살 문제는 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가정환경 및 교우관계의 문제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권미연, 2017:258). 청소년의 자살이 가정환경과 교우관계에서 출발하고, 성인에 비해 충동적이며, 삶과 죽음의 복합적 감정을 동시에 드러내는 특징을 감안한다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필 서사에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쓰기(창작) 교육 내용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갈래이다.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죽음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 서사는 「8월의 크리스마스」, 「노트북」,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세 편이 전부이다. 이들 서사는 모두 '사랑과 죽음'을 모티프로 하고 있다. 특히 타자의 죽음에서 비롯하는 상실 체험이 잘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그러나 지학사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8월의 크리스마스」는 단원 학습목표 설정대로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금성출판사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노트북」은 조선시대 두 남녀의 이루어질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다루고 있는 「운영전」과 비교하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서사 갈래의 구조적 차이를 파악하는 활동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영화 갈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 고유의 형상성보다 문학교육과정에 의해 설정된 내용성취기준을 구체화한 학습목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죽음교육 관점에서 문학 작품의 고유한 특성과 문학교육의 의도를 적절히 통합할 수 있는 교육 내용 구성 원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런 가운데 금성출판사의 문학 교과서(류수열 외, 2019:116-117)에 수록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문학과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단원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는데, 문학 고유의 형상성과 문학교육 이념의 접점으로 죽음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11>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학습활동 예시

<table>
<tr><td colspan="3"><한눈에 보기>
‘할아버지’의 죽음이 가까워 오는 것을 묘사한 ‘병원’과 ‘마당의 의자’ 사이에는 과거의 나들이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이 장면을 삽입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자.
◦ 옷을 태우는 장면을 중심으로 작품에 담긴 정서를 이해해보자.</td></tr>
<tr><td>할아버지의 죽음 전, 감독에게</td><td colspan="2">할머니 불에 태워줘야 입는대요, 죽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깨끗한 것들 태워 드리고 이번에는 평소에 입는 것들을 정리하느라 그래요.
한꺼번에 태워드리면 무거워서 어떡하오.
할아버지는 물라,(울음 섞임.) 겨울옷인지 여름옷인지. 할아버지는 몰라요, 할아버지는 내가 다 챙겨줘야 돼요.</td></tr>
<tr><td>할아버지의 죽음 후, 독백</td><td colspan="2">할머니 할아버지, 가져가셔서 내년 봄 되면 입으셔요. 내년 봄날 따듯해지면 입으셔요.
이건 할아버지 러닝셔츠야. 날 따시거든 입어. 내가 없더래도 잘해요.
깨끗이 낯도 닦고,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할아버지, 내가 없더래도.</td></tr>
<tr><td colspan="3">(1) 감독이 이 영화에 ‘할머니’가 옷을 태우는 장면을 자주 담아내어 표현하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을지 추측해 보자.
(2) 이 장면들을 통해 영화가 자아내는 정서를 파악해 보자.

<초점활동>
1.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영화 제목은 다음 <공무도하가>의 시구에서 유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과 영화의 관계를 파악해 보자.</td></tr>
<tr><td colspan="3">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公無渡河)/임은 그예 강을 건너시네(公竟渡河)
강에 빠져 돌어가시니(墮河而死)/가신 임을 어이할꼬(當奈公何)</td></tr>
<tr><td colspan="3">(1) ‘강을 건너다.’라는 어구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자.
(2) <공무도하가>의 ‘백수광부의 아내’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할머니’의 상황과 정서가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 정리해 보자.</td></tr>
<tr><td><공무도하가>의
백수 광부의 아내</td><td>상황과 정서</td><td><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할머니</td></tr>
<tr><td>-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td><td></td><td>-울면서 할아버지의 여윈 몸을 쓰다듬는다.
-석달만 더 살아요.</td></tr>
<tr><td>-임은 그예 강을 건너시네</td><td>죽음으로 인한 이별,
지극한 슬픔</td><td>-</td></tr>
<tr><td>-가신 임을 어이할꼬</td><td></td><td>-나도 할아버지 보고 싶더래도 참는 거야.
-나는 집으로 가니, 할아버지는 잘 계세요.
춥더라도 참고.</td></tr>
<tr><td colspan="3">(3) ‘임이여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고대 가요의 구절이 지금까지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토의해 보고, 문학과 영화는 어떤 관계를 지닐 수 있는지 추측해 보자.</td></tr>
</table>

위의 <표 11>에서 알 수 있듯이, 금성출판사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한눈에 보기>, <초점활동>, <확장활동>으로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다. <한눈에 보기>에서는 할아버지의 죽음 전후 사건과 유품의 상징적 해석을 통해 상실 체험의 아픔과 정서에 대해 학습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준다. <초점활동>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죽음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다른 문학 장르와의 비교를 통해 할머니(살아남은 자)의 정서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

전시(古典詩)와의 비교활동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사랑과 죽음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대응과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준다. 아울러 <확장활동>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과 인접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 공무도하가 노래를 통해 문학과 음악의 장르적 특성을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나아가 문학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살리거나 변용해서 창작된 다양한 분야의 예술작품들을 찾아서 소개해보는 활동을 해봄으로써 학습자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죽음에 대한 자세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활동은 문학 작품 고유의 형상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도 유효한 교육 내용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청소년 학습자들은 다매체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은 매체이자 동시에 매체언어가 된다. 이러한 매체언어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재래식 정보인 신문과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에서부터 휴대폰, 아이패드, 컴퓨터, 인터넷까지 전방위적으로 소통되는 모든 언어를 가리킨다(하숙자, 2003:3). 인쇄매체를 통해 문학을 감상하는 것과 영상매체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은 학습자마다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매체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분명히 두드러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매체언어의 형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화 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서사에서 죽음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 구성에 탄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죽음교육 관점에서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 서사 작품들의 제재 수록 양상과 학습활동 내용을 살펴보았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일반선택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죽음모티프의 서사 갈래는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영화이다. 설화는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진 작품들이 제재로 수록되어 있지만,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하는 단원에 편중되어 있었다. 고전소설은 문학교육 내용체계의 다양한 영역을 반영한 단원의 제재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권선징악과 죽음', '사랑과 비극적 죽음'이라는 이야기에 함몰된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었다. 현대소설은 여러 서사 갈래 가운데 가장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진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습활동은 '전쟁과 죽음', '권력과 죽음', '산업화와 죽음' 등과 같은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이 실감할 만한 죽음의 윤리적 문제나 생명의 소중함, 종교적 이해와 같은 활동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화(극)는 청소년기 학습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갈래임에도 불구하고 제재로 활용된 경우가 적었다. 그나마 수록된 작품들은 '사랑과 죽음'이라는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한계를 보였다. 향후 국어교육에 죽음교육이 적용될 경우, 학습자들이 서사에 대한 응답하기로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통해 자기 삶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제재로 수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자살 문제(자기 죽음 성찰), 유언이나 유서, 장례문화 등 포스트휴먼시대의 죽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작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하이데거(2020:12)는 삶의 법칙을 과학의 논리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네 삶을 과학문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삶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모습과 풍부한 논리를 되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학만큼 인간의 삶을 잘 드러내는 문화적 양식은 드물 것이다. 따라서 문학교육에서는 죽음교육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제재 선정 기준 및 수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알폰스 디켄(2008:98-125)의 죽음교육 목표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죽음교육의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첫째,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 인식, 둘째, 죽음에 대한 대응, 셋째,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넷째, 죽음에 대한 의학적·윤리적인 이해, 다섯째,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여섯째,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인 이해가 그것이다. '죽음과 책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한 여섯 가지 죽음교육의 내용 범주를 염두에 두

고,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서사 갈래에 나타난 죽음 관련 학습활동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영화(극) 등의 작품들은 저마다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 교과서에 설정된 단원 학습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성취기준 달성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그 가운데 바람직한 죽음교육의 내용을 마련하고 있는 교과서 활동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이들 교과서의 활동들은 어떤 일정한 기준 없이 작품의 주제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기저기 산재하고 있다는 인상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죽음교육의 다양한 내용 범주 가운데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에 함몰되어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인식'하는 내용이나 '죽음에 대한 의학적·윤리적 이해',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 이해[20]'를 도모하는 교육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어교육에서 청소년들에게 왜 죽음교육을 실행해야하는가 그 목적과 방향에 대해 진지한 학적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문학교육과정 차원에서 죽음교육을 어떻게 수용하고 전개해나갈 것인지 보다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의 제재수록 양상과 학습활동 내용 분석을 통해 죽음교육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본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전통적 관점에서 죽음관을 살펴보지 못하고 서구적 관점에서 전개된 죽음교육 모델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를 검토한 것은 이 논의의 한계로 남는다. 문학교육과정 차원에서 죽음교육의 목적과 방향,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추후를 기약한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 제재들의 죽음교육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현행 문학 교과서 총 10종 가운데 죽음모티프를 가진 서사 갈래를 살펴보면, 설화, 고전소설, 현대소설, 수필, 영화가 있다. 그 가운데 현대소설이 문학 교과서 10개 종류에 총 21편으로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은 대개 죽음모티프 고유의 형상을 이해하기보다 문학교육의 내용성취기준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죽음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지만, 특정한 교육 내용을 가르치는 데 함몰되어 있거나, 다양한 학습목표를 구현하는 데 소수의 특정 작품이 제재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습활동 내용 분석 결과, 이들 작품들은 대부분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삶의 과정으로서 죽음을 인식하는 내용이나 죽음에 대한 윤리적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이 미흡하였다. 특히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활동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향후 문학교육과정 차원에서 죽음교육의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제재 선정 기준과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문학(literature), 문학교육(literature education), 문학교육과정(a course of literature education), 죽음(death), 죽음교육(death education), 인간 본래성(human nature)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어과 교육과정」, 2015.

김동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천재교과서, 2019.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동아출판, 2019.

류수열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금성출판사, 2019.

방민호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미래엔, 2019.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좋은책신사고, 2019.

정재찬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지학사, 2019.

조정래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해냄에듀, 2019.

정호웅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천재교육, 2019.

최원식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창비, 2019.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비상, 2019.

2. 논문 및 단행본

강선보, 「죽음에 관한 교육적 논의」 『사논총』 제21권(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997)

권미연, 「죽음교육을 통한 청소년 자살예방교육-니체의 생사관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44집(한국윤리교육학회, 2017)

김근호, 「이태준 소설의 서사 윤리와 소설교육」 『현대소설연구』 제54호(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김도희, 「국어교과서를 활용한 죽음교육-죽음모티프 분석을 통한 교육 방법 모색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46호(국어교육학회, 2010)

김정욱, 「전통문화 교육자료로서 웹툰의 활용에 대한 고찰 -<신과 함께>에 반영된 저승관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제61집(중앙어문학회, 2015)

김지혜, 「청소년소설에 나타난 죽음 표상 연구」 『한국문예창작』 제14집 1호(한국문예창작학회, 2015)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8.

남궁정, 「다매체 환경에서의 문화기호학 기반 서사교육론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집 12호(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신교남 · 이병승, 「하이데거 존재론에 나타난 죽음의 현상학적 의미와 죽음교육」 『교육철학』 제50집(한국교육철학학회, 2013)

마은종, 「볼르노 철학에서 죽음과 교육의 관계」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3-3호(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5)

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백서』, 세종: 여성가족부, 2018.

이기상, 「존재사건과 존재지평: 한국어의 존재(있음)에서 읽어내는 존재사건」 『존재론연구』 제15집(한국하이데거학회, 2007)

이나영·유지영, 「발달단계별 죽음 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교육학연구』 제57권 3호(한국교육학회, 2019)

이동윤·강선보,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29권 1호(한국교육학회, 2016)

이승현, 「한恨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눈물의 미학」 『고요아침』제68호(시조시학, 2018)

전한성, 「체험적 자기이해의 개념과 창작 교육적 의의」 『국어문학』제55집(국어문학회, 2013)

최옥선, 「현대교육의 과제로서의 죽음의 문제」 『교육철학연구』 제14-2호(교육철학회, 1996)

최인자, 「자아 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창작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ㅡ서사표교육의 주제론적 접근」 『국어교육학연구』18권(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3)

하숙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매체언어교육 수용방안」, 『교과교육연구』 제24호(교과교육학회, 2003)

허상문, 「수필 문예 확산을 위한 제언-대중성에서 전문성으로」 『수필시대』 제10권(문예운동사, 2015)

알폰스 디켄, 전성곤 옮김, 『인문학으로서의 죽음교육』, 인간사랑, 2008.

윌리엄스 워던, 전석균·임승희 옮김, 『가족을 잃은 아이의 슬픔』, 시그마프레스, 2008.

르네웰렉·오스틴 워레,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2.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99.

칼 베커, 김재영 옮김, 「현대문화와 학교 안의 죽음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19권(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하이데거, 이수정 옮김, 『존재와 시간』, 철학과현실사, 2020.Rollo May, 백상창 옮김,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문예출판사, 1991.

Endnote

1 하이데거(2020:332)는 인간이 시간적인 존재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존재인데, 이러한 존재(현존재)는 죽음이 있어야만 삶이 하나의 전체성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그는 죽음을 생물학적 죽음인 '끝나버림(Verenden)', 현존재에게 시간이 다 했음을 의미하는 '삶을 다함(Ableben)', 존재자가 스스로 맞이하는 '사망(Sterben)'으로 나누고 있다. 앞의 두 죽음은 당하는 죽음이고, 세 번째 죽음은 맞이하는 죽음에 해당한다. 그의 논의에 근거해보면, 죽음은 삶과의 대립이 아니라 삶의 일부이며, 단순히 물리적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 죽음의 교육의 소개와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연구로는 최숙향(1995), 강선보(1997), 최옥선(1996) 등이 있고, 특정 사상가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죽음교육을 살펴본 연구로는 강선보(2003), 신교남·이병승(2013), 마은종(2015) 등이 있다.

3 Carl Becker, 김재영 옮김, 현대문호와 학교 안의 죽음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제19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4, 27-28쪽.

4 알폰스 디켄, 전성곤 옮김, 인문학으로서의 죽음교육, 인간사랑, 2008, 111쪽.

5 Carl Becker, 김재영 옮김, 앞의 논문, 2004, 28쪽.

6 서사의 세 가지 윤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술의 윤리이다. 이는 서사 속의 다양한 인격(작가, 화자, 인물 등)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대화적 관계의 책임 윤리를 말한다. 둘째, 재현의 윤리이다. 이는 서사의 인물에 독자 자신을 투영하는 인격적인 상호교체의 경험과 거리두기에 기반을 둔 책임 윤리를 가리킨다. 셋째, 해석학적 윤리이다. 이는 서사를 수용하는 주체가 떠맡을 수밖에 없는 서사에 대한 응답하기라는 책임 윤리를 의미한다(김근호, 2013:72-73).

7 문학 교과서의 제재 수록 양상과 학습활동 내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2015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이나 목표, 내용체계 차원에서 죽음과 관련된 진술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구현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는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의 제재 학습에서 죽음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 양상을 고찰해보는 일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8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는 아동기 12세 이하, 청소년기 13-24세, 성인기 25-64세, 노년기 65세 이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박시내 외, 2013). 죽음에 대한 이해나 태도는 개인별 차이도 있겠지만, 발달단계별 특성에 따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9 이 때 죽음모티프 서사 갈래 작품들을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모티프가 내용구조의 기본 단위이면서 추상적인 수준의 내용으로서 전통 가운데 유지될 힘을 가진 최소 이야기 단위이기 때문이다(최인자, 2003:82). 뿐만 아니라, 모티프는 이야기의 전체 구조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단위로 존재하며 인류의 정신과 문화유산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공통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다시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문학>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참고.

11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에 해당하는 성취기준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전통과 특질을 이해하고 갈래별 전개 양상 등을 파악하여 한국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한국 문학의 변화 및 발전상을 탐구하는 데 중점"(교육부, 2015:128)을 두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개별적인 작품을 심도 있게 수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12 ’문학에 관한 태도’와 관련된 교육과정 성취기준은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다양한 문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삶과 연계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생활 경험이나 미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삶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주안점을 둔다.”라고 밝히고 있다(교육부, 2015:130).

13 교육부(2015:130) 참고.

14 김정욱(2015)는 <신과 함께>에 나타난 저승관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문화의 교육자료로서 웹툰의 제재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15 물론 그밖에도 ‘설(說)’, ‘전(傳)’과 같은 고전 서사 갈래에서도 죽음모티프를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슬견설」과 한 개인의 삶과 죽음을 다룬 황현의 일대기인 「성균생원황현전(成均生員黃玹傳)」이 그 예이다. 이러한 우리 고전 서사 장르도 제재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

16 칼 베커(2004)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청소년 범죄와 자살의 증가로 인해 중고등학교 차원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자각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17 설화 및 고전소설에서 나타나는 환몽구조의 구체적인 특징은 나병철(1998) 참고.

18 물론, 해냄에듀 문학 교과서(228쪽)에 실린 「운영전」 활동5를 보면, ‘운영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질문한 뒤, 학우들과 토론한 내용을 쓰게 하는 활동이 있다. 그러나 이 교과서의 해당 작품의 학습활동 역시 기본적으로는 단원 학습 목표의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구성되어 있다.

19 권미연(2017:250-252)은 청소년 자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각종 보고서와 지표를 통해 밝히면서 청소년 자살 예방 교육으로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0 칼 베커(2004:23)는 “몇몇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과학과 이성으로 대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과 죽어감은 자신들의 묘지를 찾는 전통적인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고 그들의 삶과 죽음이 의례적으로 기억되고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적 방식들로 애도되어진다. 죽음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중요하고 익숙한 부분이다.”라고 말한다. 그의 논의처럼, 문학교육에서는 청소년 학습자들의 발달 수준에 맞게 죽음에 대한 철학적·종교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학습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